우리 시대 언어로 다시 만나는 경허록·만공법어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경허록 · 만공법어 편찬위원회,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편찬한 〈경허록〉 〈만공법어〉 〈경허만공신출자료집-경허 선사편〉 〈경허만공신출자료집-만공 선사편〉.(사진 왼쪽부터)

동국대 불교학술원 4종 증보 출간

편찬위, 전자불전연구소와 협업

'경허 · 만공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근대 한국불교의 중흥조 경허 선사와 그의 법맥을 이어 간화선을 다시 뿌리내리게 했던 선지식 만공 선사의 가르침을 담은 법어집이 우리 시대 언어로 다시 발간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과 경허록·만공법어 편찬위원회(상임위원장 도신 스님),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주경 스님)는 4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편찬한 〈경허록〉, 〈만공 법어〉 등 도서 4종과 추진 중인 '경허·만공 디지털 아카이브(鏡·虛·滿·空)' 구축 사업을 소개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상반기 경허록·만공법어 편찬위원회가 구성되고, 같은 해 9월 수덕사와 불교학술원 간 '경허·만공 법어집 증보 간행 및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 업무협약'이 체결되며 편찬에 급물살을 탔다.

편찬위원회는 해인사·통도사성보박물관, 수덕사근역성보관 등을 방문 조사해 경허 선사와 만공 선사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수집했고, 이를 토대로 〈경허록〉 편찬과 〈만공법어〉 증보를 완료했다. 또한 새롭게 발견된 자료들을 묶어 〈경허만공신출자료집-경허 선사편〉과 〈경허만공신출자료집-만공 선사편〉을 발간했다.

새로 편찬된 〈경허록〉은 경허 선사의 글 중 선사상의 핵심이 드러나는 작품을 선별해 조사 어록의 체계로 편찬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경허집〉이 경허 선사의 기록 자료들을 모두 모으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경허록〉은 조사 어록의 체계에 따라 경허 선사의 선사상을 정선(精選)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만공법어〉는 사실상 개정증보판의 성격이 강하다. 지난 1968년 간행된 초간본 〈만공어록〉과 1982년 간행된 수정·증보판 〈만공법어〉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고, 새롭게 발굴한 자료를 증보했기 때문이다. 한글세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윤문과 교정, 한문 번역 수정 등 전반적인 개정 작업을 진행한 점도 눈길을 끈다. 또 만공 선사가 남긴 '만공 화상 자답', 중은(重隱) 스님이 쓴 '만공 스님을 추모하며' 등 12편이 새롭게 수록돼 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경허록 · 만공법어 편찬위원회 상임위원장 도신 스님과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장 주경 스님이 4월 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함께 발간된 〈경허만공신출자료집(鏡虛滿空新出資料集)-경허 선사편〉과 〈만공 선사편〉은 새로 발굴된 자료들을 한데 묶은 결과물이다.

〈경허만공신출자료집-경허 선사편〉은 〈호서화상법어(湖西和尙法語)〉(1932년 무심도인 필사), 〈초암자 필사본 경허집(草庵子筆寫本鏡虛集)〉(1912년 초암자 필사), '용은대사행장(龍隱大師行狀)'(1901년 경허 찬술) 등 11편의 자료를 영인해 수록한 자료집이다. 특히 〈호서화상법어〉와 〈초암자 필사본 경허집〉은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귀중한 자료로, 기존에 간행된 〈경허집〉의 대교본(對校本)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경허 선사의 법문을 필사해 소장할 정도로 선사의 법문이 당시 대중적 인기가 높았음을 방증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경허만공신출자료집-만공 선사편〉은 만공 선사 관련 옛 기사 30여 건과 친필 자료인 '전법게', 〈현양매구〉 등을 수록했다. 이번 자료집 편찬으로 수덕사 경내에 있는 '송만공대선사구휼송덕비(宋滿空大禪師救恤頌德碑)'의 연원이 1931년임을 확인하는 성과도 있었다.

편찬위원회 상임위원장 도신 스님(수덕사 주지)은 "선의 정수가 담긴 두 선지식의 말씀과 발자취를 확인하며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허·만공 선사의 선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자불전콘텐츠연구소장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은 "새로 편찬·발간된 〈경허록〉 〈만공법어〉가 선불교 정신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경허·만공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도 전개한다. 현재 아카이브에는 경허·만공 선사의 생애, 관련 문헌 및 자료, 이미지, 연구 성과가 담겨 있다. 아직 수록되지 않은 자료들은 올해 추가로 탑재할 계획이다.

동아시아 해역사 공동 연구 성과 〈입당오가전〉 학계 최초 역주



승려와 불교의 동아시아 해역 교류

정순일 엮음

경인문화사 / 5만9000원

고대 동아시아의 바다는 교역의 길이자 죽음의 길이었다. 그 길을 스님들은 불교를 배우기 위해 목숨을 걸고 넘나들었다. 〈승려와 불교의 동아시아 해역 교류〉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5개 지역, 17명의 연구자가 다년간 함께 축적한 최신 연구 성과를 담은 책이다.

그 시절 바닷길만큼이나 출간 과정도 험난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한 원고를 취합해 한국어로 번역했고, 특히 9세기 일본의 승전 자료인 〈입당오가전〉의 역주 작업까지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입당오가전〉은 9세기 일본 스님들이 중국 당나라를 방문해 남긴 기록으로, 이들의 수행 방식과 해양 이동 과정, 불교문화 전파의 실상을 담고 있다. 이번에 학계 최초로 역주한 결과물이 실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부에서는 '해역을 왕환하는 승려와 불교'를 다룬다. 주로 헤이안 시대 초기를 배경으로 7세기 동아시아의 상황을 검토한다. 베트남에서 전개된 불교문화에 대한 논고도 눈길을 끈다. 2부에서는 '동아시아 해역을 둘러싼 교류'를 주제로 동아시아 해역 교류가 지닌 여러 모습을 사신, 상인, 종교, 신앙 등의 키워드로 풀어낸다. 3부에는 〈입당오가전〉의 역주와 '고대 일본의 입당승·입송승 열람'을 실었다.

책을 엮은 정순일 교수(고려대 역사교육과)는 "공동 연구 2년 차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국제 이동이 제약된 그때 '전근대 사람들의 바다를 통한 국제 이동'을 다루는 우리의 연구가 새로운 의미로 발신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책은 고려대학교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해역사 총서'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연구소는 앞으로 〈신안선 문자자료로 생각하는 아시아의 해역 교류〉, 〈쇄도하는 신라인, 경계하는 일본열도〉 등을 순차적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부산불교 집합적 기억의 보고

〈寶庫〉



사진으로 다시 보는 근현대 부산불교

현익채 엮음

맑은소리맑은나라 / 3만5000원

현익채 법사가 엮은 근현대 부산불교 역사

"정체성 되짚고 미래 조망하는 계기 되길"

150년 부산불교의 흐름과 숨결이 한 권의 책에 담겼다. 부산불교의 근대 태동기부터 현대 중흥기, 그리고 미래를 향한 성찰까지를 사진과 기록으로 정리한 〈사진으로 다시 보는 근현대 부산불교〉가 출간됐다. 이는 단순한 자료 모음이 아닌, 부산불교의 정신과 정체성을 되짚고 미래를 조망하는 집합적 기억의 보고(寶庫)이자 시대적 기록물이다.



지난 50여 년간 지역 포교와 부산불교 역사 기록에 힘써 온 현익채 불자(전 금정중학교 교장·사진)가 수집·정리한 방대한 사료와 사진을 바탕으로 기획된 이 책은 △근대 △현대 △탈종교화와 저출산의 시대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장 '근대편'에서는 일제강점기와 개항기 이후 일본불교의 유입과 그에 따른 사찰의 변화, 범어사 선찰대본산의 주역 오성월 대선사, 명정학교와 범어사 3·1운동 등을 조명한다.

제2장 '현대편'에서는 광복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부산불교의 전개 과정을 다룬다. 특히 '광복과 전쟁의 격동기 부산불교', '불교종립학교', '금정산의 큰별 동산 대종사' 등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인물과 사건을 통해 그 흐름을 짚어본다. 이어 주요 종단들의 활동상과 불교신행단체, 어린이·청소년 포교단체들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제3장 '탈종교화와 저출산의 시대, 부산불교의 미래'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종교 인구 감소라는 현실 속에서 부산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부록'편에는 '부산의 국가 지정 불교문화유산 현황', '범어사 근현대 역대 주지', '근현대 부산불교 연표'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책에서 눈여겨 볼 것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희귀 자료들이다. 특히 1937년 일본인이 세운 입정상업학교를 불교계가 인수해 오늘날 통도사 종립학교인 해동중·고등학교로 이어진 역사적 과정을 정리하며, 종립학교 설립의 뿌리를 밝혔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현익채 법사는 "이 책이 부산불교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부산 불교계의 사회적 기여와 정신적 유산을 제대로 평가하는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4월 10일 오후 3시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에서는 〈사진으로 다시 보는 근현대 부산불교〉 출판기념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이것이 천태불교의 핵심이다!

천태불교의 이론과 실천

인도불교를 중국불교로 최초로 정착시키고 토착화시킨 천태불교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 전반을 서구 철학자의 안목으로 알기 쉽게 조명한 역작이다!

브룩 지포린 지음/정천구 옮김/520쪽/값 30,000원

불교철학 초심자들을 위한 안내서!

불교철학 길라잡이

2,500여년에 걸친 불교사상의 변천과 전래과정을 추적하여 불교철학의 주요 얼개를 오늘의 언어로 보여주는, 불교의 지적 전통에 관심 있는 독자들을 위해 개론서이다.

이규완 지음/276쪽/값 20,000원

인공지능시대,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

공심이의 비밀일기

자꾸만 AI에 기대는 아이의 모습에 어른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주인공 공심이와 함께 명상여행을 떠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김임천 글 · 그림/216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